

후원 동역자님께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정을 위해 항상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모든 동역자님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의 우기도 그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우기 초, 너무 비가 오지 않아 걱정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이제는 메콩강이 범람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변에서는 사대주머니를 만들어 사전 예방책으로 쌓아가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이미 범람하여 전동펌프를 동원, 물을 퍼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연시 여기며, 강변에 나와 물 구경과 낚시하는 현지인들을 보노라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그러려니 하는 이들의 여유를 보면서,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의 삶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기로 인한 큰 피해가 없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간의 소식을 몇 자의 글과 사진으로 대신하여 간략히 전합니다.



단기선교팀 일정을 마치며...

여름 단기선교팀 일정을 마치며, 캄봉참 / 뿌리벙 선교사님 가정 연합으로 문돌끼리를 다녀왔습니다.

인근에서 사역하시는 선임선교사님들께서 캄보디아에서 꼭 한번은 가봐야 할 곳으로 추천하신 탓에 지역탐방 차원에서 동행한 이번 일정 가운데 그 동안 봐왔던 캄보디아가 아닌 신세계로의 캄보디아를 보는 것 같아 무척이나 새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함께한 여러 선교사님 가정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말씀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 영·육간에 더욱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곳에 와, 한번도 동갑내기 친구를 사귀어보지 못한 지아에게 동갑내기 친구(동진)와의 만남은 매우 특별한 시간(삶)이 된 것 같아 부모로서도 매우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기...

주님께서 가정으로 허락하셨던 셋째 아이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말을 잊지 못하고 혼자 울며, 슬픔에 잠겨있는 김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도 해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나는지 쉽게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마음의 안정과 계획하신 뜻을 구하는 가정이 되길 소원하며 함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사이기 전, 주님의 사랑하는 딸, 김은경 선교사를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지아의 홈스쿨링 스토리...

지아의 학교교육을 위해 "A Beka Academy"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신청에서부터 배송(교재)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한 미국식 교육 프로그램이기에 수업의 첫 시간이 성경공부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어 지아의 신앙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만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에 지아의 듣는 귀가 열리길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홈스쿨링에 대한 빠른 적응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홈스쿨링 지도교사로 수고하는 김은경 선교사가 지아에게 엄마이자 가장 가까운 선생님께서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의 더욱 강건함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캠포참 패밀리...

추석을 맞이하여 캠포참 인근에서 함께 수고하는 선교사님 가정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백신종 선교사님의 말씀과 함께 준비하여 나눈 식탁의 교제를 통해 말씀의 은혜와 교제의 기쁨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교실 운영...

시카고 헬로쉽교회 김정태 전도사님의 섬김을 통해 고아원 내 6대의 컴퓨터가 생겼습니다(고아원 소식참조).

이를 통해 기초부터 시작하는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컴퓨터 교육만이 아닌 사역을 통해 습득하는 언어의 현장실습으로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언어전달의 과정에서 막히는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준비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변혁을 꿈꾸는 교회사역

[찬양팀] 그 동안 연습하며 준비하였던 찬양팀 드림연주자가 세워졌습니다. 10월의 첫 예배를 시작으로 호흡을 맞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실전의 떨림이 부족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계속되는 교육과 연습을 통해 훗날, 교회의 유력한 자로 성장하기를 기도해봅니다.

[리더십교육과 예배훈련] 차세대 리더양성을 위해 리더십교육 및 예배훈련을 실시합니다. 원하기는 교육에 참여하는 이들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됨이며, 둘째는 교회의 다음세대를 준비함으로 자발적 참여의 예배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로운 터를 허락하소서] 교회 형편상 고아원 안에 들어와 운영되던 과정에서 이모양 저모양으로 교회의 침체기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임 선교사님들과의 논의 끝에 일시적으로나마 예배장소를 외부로 옮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먼저는 성도의 예배훈련 및 교육함이며, 둘째는 교회 활성화를 통한 부흥에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생각하면 조금은 무리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린 부분도 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며, 모든 것으로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지인 까끄다 전도사도 전임사역으로 섬기게 되었는데, 모든 계획과 준비함이 주님의 뜻을 좇는 계획과 행사가 되기를 원하며, 수고하는 까끄다 전도사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기도합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부탁 드립니다.



사역을 위한 기도제목

1.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컴퓨터 수업)을 위해 - 철저한 준비와 규모있는 수업진행이 되기를
2. 변혁을 꿈꾸는 교회를 위해 - 교회성장의 발판(밑거름)이 되길 원하며,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길.
3. 가정을 위해 - 김은경 선교사의 건강 회복과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홈스쿨링을 시작한 지아가 수 일내로 자리잡아 수업에 적응할 수 있기를
4. 언어의 진보를 위해
5.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의존함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뜻을 좇는 계획과 준비, 진행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보디아 캠포참에서
무익한 종 장진기 / 김은경(지아, 지훈) 선교사 올림